

# 한우값 폭락·사료가격 폭등...설 대목 축산농 울상

### 사료가격 1년새 80% 뛰어 올라 마리당 200만원~300만원 손해 사육 두수 '역대 최대' 도매가 27% '폭' ...소비자 가격은 그대로 "전남도, 사료가격 보조금 지원 등으로 한우 생태계 붕괴 막아야"

사료 가격이 1년 사이 80%나 치솟은 반면 민족 명절인 설 대목을 2주 앞두고도 전남도내 한우 도매가격 폭락이 이어지면서 축산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경제위기로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상승이 이어지며 소고기 소비량은 줄어드는 반면 전남도내 한우 사육량은 늘고 있어 축산 농가 위기가 장기화될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최근 사료 구매자금 이자를 지원 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농민들은 실효성이 없다며 한숨만 내쉬고 있다.

장흥군 용산면에서 한우 350마리를 키우고 있는 김창진(56)씨는 요즘 사료 가격이 치솟아 소를 키울수록 손해가 늘고 있어 밤잠을 설치고 있다.

김씨는 "1년 전만해도 30개월 된 소 한 마리 키우

는데 사료비로 300만원이 필요했지만, 최근에는 500만원 정도 든다"면서 "소 한 마리를 팔 때마다 전에 비해 200~300만원씩 손해를 보고 있는 꼴이다. 키울수록 손해다보니 한우 농가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소를 팔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 대목을 앞두고도 한우 가격 폭락이 멈추지 않고 있어 농민들의 표정은 더욱 어둡다. 지난해 조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영향으로 수입 곡물 가격이 올라 사료비는 끝없이 올라가는데, 정작 한우 도매 가격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한우 도매 가격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호남권 한우 도매 평균 가격은 1kg당 1만3405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5% 감소했다. 지난해 호남권 한우 도매 평균가

격인 1kg당 1만8487원보다 약 27% 감소한 수치다. 한우 한 마리 무게를 약 700kg으로 봤을 때, 한우 도매 가격이 약 400만원 이상 떨어진 셈이다.

반면 국제 곡물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전쟁으로 수입 곡물 가격이 올라 한우 사료로 쓰이는 옥수수·대두박·소맥·땃짚 등의 가격도 덩달아 오른 것이다.

김동구(55) 전국한우협회 영암군회장은 "전쟁 전에는 사료 25kg 한 포대당 1만1000원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1만5000원으로 끝을 모르고 계속 오르고 있다"며 "사료비와 금리, 인건비 등이 모두 오른 상황에서 소 도매 가격만 떨어져 키울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소 값이 하락하는 이유로는 전국 한우 사육 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공급이 많아졌고, 고급리로 소비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국 한우 사육 두수는 약 350만 마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경상북도에 이어 두번째로 한우 사육 두수가 많은 전남도는 지난해 약 60만 마리의 한우를 길러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우 농가들은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너도나도 소를 팔려고 출하를 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2021년 한우 도축량은 약 12만 마리였지만, 지난해 도축량은 약 14만 마리로 10% 증가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2015년부터 한우 농사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매년 한우 사육 두수가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며 "손해를 보면서라도 한우를 출하하는 사람이 많아 한동안 도매가격 하락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남도는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사료 구매 자금의 이자를 지원하고 한우 판촉에 적극 나서기로 했지만, 농민들은 언 발에 오줌누기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복잡한 유통구조 탓에 한우 도매가격 하락이 소비자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아 소비 심리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며 "한우 생산비에 가장 큰 부담인 사료 가격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한우 생태계 붕괴를 막기 위해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 전통시장 은누리상품권 환급 광주 서구, 양동시장 등 3곳

광주시 서구는 오는 14~21일 일주일 동안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 양동건어물시장, 양동수산물시장 등 3개 전통시장에서 '설 맞이 은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9일 서구에 따르면 행사 기간 동안 시장에서 당일 결제한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챙겨 왔다가 환급 부스에 제출할 경우 은누리상품권으로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까지이며,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가능하다.

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 건어물 및 젓갈류를 판매하는 187개 행사 참여 업소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양동전통시장은 오는 31일까지 설 명절을 맞이 은누리상품권 특별 할인판매도 한다.

이 기간동안 카드형 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 할인율은 기존 5%에서 10%로 인상된다. 1인당 월 구매 한도도 인상되는데 지류형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카드형과 모바일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꽃값은 금강 9일 오전 광주시 서구 풍암화훼공판장에 형성색 꽃들이 진열돼 있다. 올해는 장미꽃이 예년에 비해 25%가량 오른 가격에 거래되는 등 전반적으로 꽃 가격이 비싸졌는데, 기름값과 원자재 등 가격이 상승해 꽃 출하량도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김진수 기자 jeans@

## 전남대 간호대학, 용봉캠퍼스에 등지 튼다

### 2026년까지 치의전 기초교육관 증축·리모델링

전남대학교 간호대학이 용봉캠퍼스에 새 등지를 튼다.

특히 용봉캠퍼스와의 분리로 인한 학사 운영의 비효율성, 학생 및 학제 간 교류 제한 등으로 용봉캠퍼스로의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2016년부터 7년 동안 용봉캠퍼스 이전을 위해 노력했으나 번번이 좌절됐으나 지난해 5월 가깝으로 교육부의 국고 신규사업 심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 두 차례나 심의에서 탈락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김정선 학장은 "간호교육관은 최신 교육시설과 실습 공간 등 다양한 학사 시스템을 갖춘 계획이다"며 "지역공동체와 함께 융·복합 헬스케어 리더를 양성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제한 교육시설과 편의시설, 지원시설이 취약했다.

특히 용봉캠퍼스와의 분리로 인한 학사 운영의 비효율성, 학생 및 학제 간 교류 제한 등으로 용봉캠퍼스로의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2016년부터 7년 동안 용봉캠퍼스 이전을 위해 노력했으나 번번이 좌절됐으나 지난해 5월 가깝으로 교육부의 국고 신규사업 심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 두 차례나 심의에서 탈락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김정선 학장은 "간호교육관은 최신 교육시설과 실습 공간 등 다양한 학사 시스템을 갖춘 계획이다"며 "지역공동체와 함께 융·복합 헬스케어 리더를 양성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2022년산 공공비축미 매입가 6만4530원

### 40kg 기준 전년비 13.1% 하락

정부의 2022년산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이 40kg 기준(비·1등급) 6만4530원으로 정해졌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확정된 2022년산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지난해 10~12월 3개월 간의 평균 산지쌀값을 반영한 것으로, 40kg 기준(비·1등급) 6만4530원으로 결정됐다.

전년도 매입가격(7만4300원)보다 13.1%(9770원) 낮은 가격으로, 전남도와 농민단체 등

의 희망가격(7만2719원)에도 못 미친다. 농사에 들어간 비료값, 인건비, 농기계 값, 차량 유류값 등이 예년보다 크게 오른데다, 농협 등이 매입하는 가격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보다 낮은 점을 감안하면 아쉽다는 농민들이 많다.

그나마 전남도와 농민단체, 민주당 등 정치권이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 데 따라 정부가 지난해 9월 말 햅쌀과 창고에 남아있는 전년도 쌀 45만 t을 사들이기로 발표하면서 매입가격을 올리는데 긍정적인 영향

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지쌀값의 경우 지난해 9월 정부의 45만 t 시장 격리 방침 발표 전만해도 80kg(9월 25일 기준)이 16만1572원에 불과했다. 40kg(비) 가격으로 환산하면 5만5285원이었다. 당시 쌀값은 관련 통계를 조사한 지난 1977년 이래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이후 농림부의 시장 격리 방침이 발표됐고 직후인 10월 5일 6만5000원(40kg 비)으로 오르며 상승세를 탔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민주당 등 정치권은 그러나 임시방편식 쌀값 대책이 아닌,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시장 안정 조치가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광주 북구,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공모 선정

### 국·시비 15억 확보

광주시 북구가 지역 맞춤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지원해 지역청년 이탈 방지에 나선다.

북구는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시비 등 총사업비 15억여 원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청년 일자리 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에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제공해 자산 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북구가 선정된 청년일자리 사업은 ▲광융합·생체의료산업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 ▲2023 창업청

년 성장UP 고용PLUS 지원 ▲산업단지 SMART 전문인력 지원사업 ▲첨단북구 디지털뉴딜 일자리 프로젝트 ▲광융합산업 맞춤형 인재 육성 프로젝트 등 총 6개 사업으로 4차 산업 분야다.

북구는 올해 지역 청년 83명에게 4차산업 선도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와 교육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창업 시스템을 지원한다.

기업-청년 일자리 매칭,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지원 등 지역 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청년인재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